

봄 철 기 상

우리나라는 아시아대륙의 동쪽 중위도에 위치하여 연중 사계절이 뚜렷하고 한서의 차가 심하며 계절풍지대에 속해 있어 장마철이라는 또하나의 계절이 있어 날씨변화가 심한 것이 특징이다.

사계절중 겨울이 가장 길 뿐만 아니라 한겨울추위는 같은 위도대에 속해있는 어느 곳 보다도 심하다. 더욱이 추위가 밀어닥칠 때는 강풍을 동반하기 때문에 몸으로 느끼게 되는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져 몹시 춥게 느끼게 된다. 따라서 겨울뒤에 맞는 봄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보다 기다리게 되는 계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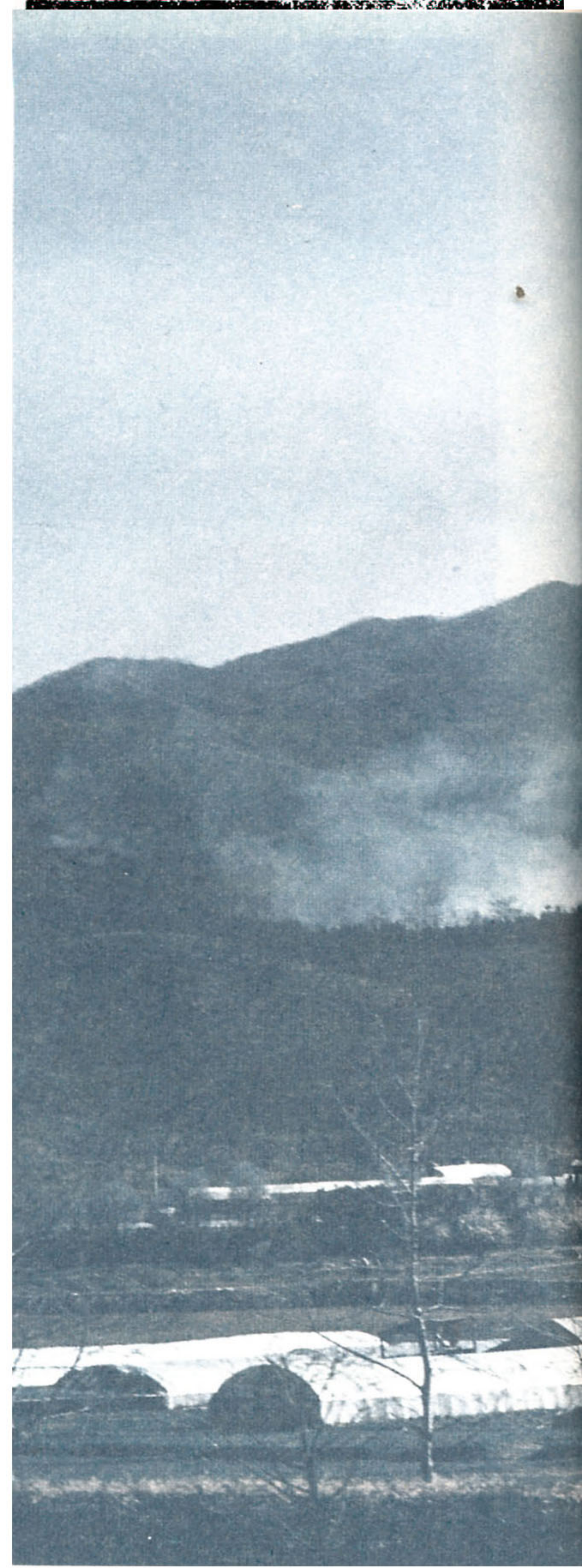
봄철에는 겨울에 움추렸던 삼라만상이 새로운 생명의 약동을 시작하며 산과 들엔 잔설이 녹기도 전에 푸른 새싹이 돋아나고 아름다운 꽃망울을 하나 둘 터뜨려 모든 산야가 노란 개나리와 빨간 진달래, 또 흰 벚꽃 등 온갖 꽃들로 뒤덮히는가 하면, 어느새 싱그러운 신록이 온 누리를 가득 채우게 된다. 그래서 봄철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 위해 산과 들에는 상춘객들로 가득 메워진다.

한편 봄철에는 행사도 많아 농촌에서는 고양이손도 빌린다는 말이 있듯이 일손이 더없이 바빠지고 한식날의 성묘, 벚꽃놀이, 봄소풍, 단오절의 그네뛰기와 씨름 등 민속놀이 석가탄신일의 불교계 행사 등 여러가지 계절 행사가 이어지고, 각종 봄철 체육대회 등 스포츠, 문화행사, 관광 및 레저행사 등으로 분주한 계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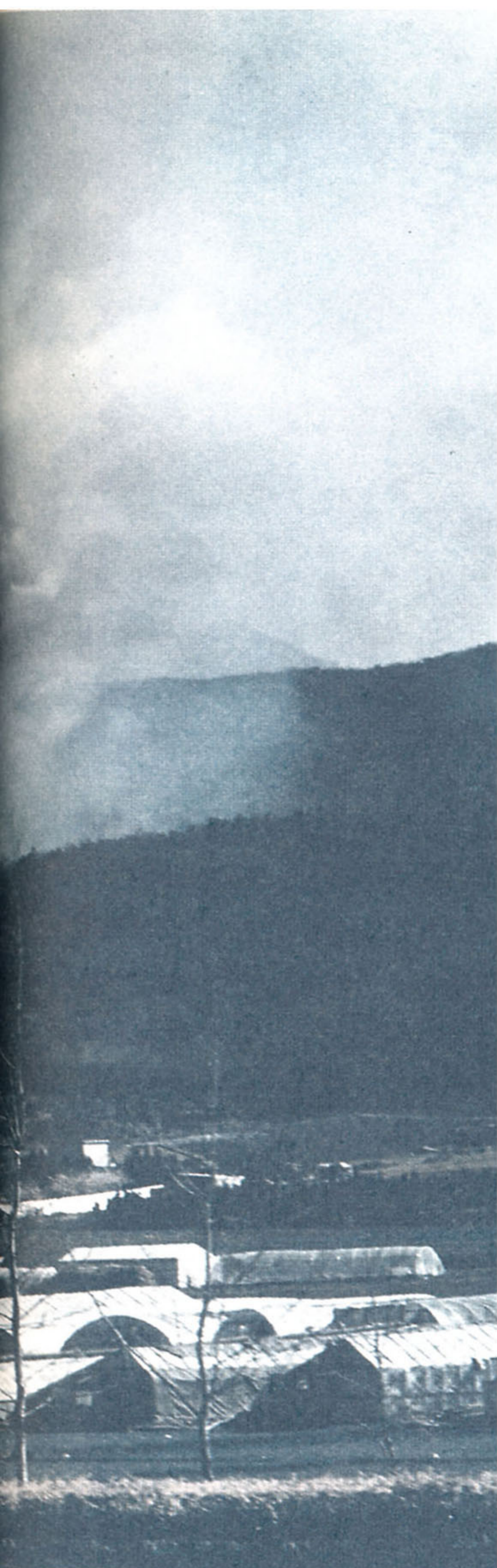
한편 날씨도 온화해져 일상생활이나 여러가지 행사를 치루기에 알맞은 계절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후통계를 보면 겨울에서 봄으로의 길목을 가로막는 계절현상이 많고 이와같은 현상이 거의 끝날 때면 어느덧 계절은 여름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예로부터 '봄은 왔으나 봄은 아니다, 왔는가 하면 가는 것이 봄이다'라는 말이 전



김 동 완
문화방송 보도위원



야 할 일들이 많다.

봄철에 주로 나타나는 기상현상으로는 봄비, 꽃샘추위, 봄가뭄, 폭풍, 황사현상 등을 들 수 있다.

봄비는 대지를 촉촉히 적셔주는 단비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대개 3~4일 주기로 내려 한번 일요일에 내리게 되면 그다음 일요일에도 내리는 경우가 많아 주말 행사를 망쳐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봄철에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공기가 건조하므로 해에 따라서는 한달이상 가뭄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다. 또 3,4월까지는 아직도 시베리아나 몽고지방에 찬 대륙성 고기압세력이 남아있어 이 고기압이 빠른 속도로 밀려올 때는 번개, 천둥, 돌풍을 동반하고 비 또는 눈과 함께 꽃샘추위가 몰려와 때론 봄눈이 장관을 이루기도 한다. 또한 황사현상도 자주 나타난다.

황사현상은 몹씨 건조할 때 몽고지방이나 중국북부지방의 모래나 흙먼지들이 공중 높이 날려 올라가 강한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까지 날려오는 현상으로서 이 흙먼지속에는 나쁜 병원도 섞여있어 호흡기계통의 질환이나 안질환 등으로 고생하기 쉽다.

봄철에는 지표면의 불균일에 따라 지역에 따른 기온차가 크게 남으로써 난기류가 많이 발생하는 가운데 때때로 강한 바람이 불어 오전에는 따뜻하던 날씨가 오후가 되면서 심하게 바람이 불어 냉기를 느끼게 된다. 또 이 바람이 산을 넘어 밑으로 불어내려올 때는 보다 건조하고 더운 바람으로 바뀌어 'Föhn' 현상을 일으켜 몹씨 건조한 날씨가 된다.

따라서 봄철에는 비가 많이 내

리지 않은데다 바람이 많이 불고 기온은 높아지고 공기는 보다 건조해짐으로써 모든 물체가 그야말로 바싹 마른 상태가 되어 조그마한 불씨만 떨어져도 불이 나고 일단 불이 나면 삼시간에 큰 불로 번지기 쉽다. 그래서 봄철에는 관계기관으로 부터 불조심 강조주간이 설정된다.

일년 열두달 어느 때를 막론하고 불조심을 해야겠지만 특히 봄철에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봄철 기상조건이 불이 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나날이 높아지는 봄기온과 낮의 길이가 길어져 활동시간이 많아지면서 우리 몸의 열량소모가 많아지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데서 생기는 춘곤증현상이 있어 주의력이 약해지는 반면 화창한 봄날씨에 이끌려 자기도 모르게 들뜬 기분에 사로잡히기 쉬운 것 등이 뜻밖의 안전사고를 당하게하는 원인이 된다.

안전사고는 어느 것이나 끔찍한 일이지만 특히 화재는 순간의 조그마한 부주의가 일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요즈음은 등산인구도 부쩍 늘어 휴일이면 도시근교 산들이 인파로 덮히곤 해서 어느 때보다 산불예방이 요망된다. 순간의 실수로 산불이 발생해 산이 황폐화되면 이를 복구하는 데는 30년 이상의 기나긴 세월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다.

꺼진 불도 다시 보고 내가 좋아 가는 산 내가 먼저 산불조심으로 화재 없는 우리동네, 산불 없는 우리고장 가꾸기에 다같이 노력해야겠다. (㉞)

해오고 있다.

봄철에는 기압계의 이동이 빨라지면서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 어느 계절보다 변덕날씨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 이와같은 기압계 변화에 따라서 흔히 이야기하는 봄을 시샘하는 날씨 현상이 많아 건강 관리상이나 산업분야는 물론 정신위생 관리면에서 주의해